



TPP가 섬유·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

최대 의류 수입시장인 미국,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 타결되었다. 미국과 일본의 의류 등 섬유류에 대한 고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, 베트남을 핵심축으로 TPP 내 섬유·의류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(Global Supply Chain)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TPP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, 대만 등 TPP 역외국의 베트남 내 업스트림(upstream)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역내 일관생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.

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섬유소재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, 가입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이미 투자 진출을 한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1 세계 섬유·의류산업의 무역현황

□ 섬유·의류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섬유류의 경우 세계 수출액의 35.2%, 의류의 40.9%를 차지하는 한편 최대 의류 수입국은 미국, EU, 일본임

○ (섬유류)¹⁾ 섬유소재 및 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직물(전체 섬유류 수입의 44.4%)로 봉제 산업이 발달한 중국, 베트남이 직물의 주 수입국이며 주로 중국, 한국 등지에서 조달함

국가별 섬유류 수출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	섬유류	원료	원사	직물	제품*	비중
1	중국	1075.1	16.4	117.7	617.6	323.5	35.2
2	인도	196.3	6.4	70.8	51.6	67.5	6.4
3	미국	159.5	17.0	32.2	65.4	44.9	5.2
4	독일	155.8	8.9	17.1	78.7	51.1	5.1
5	한국	137.8	14.3	17.2	93.7	12.5	4.5
	전세계	3054.8	122.5	518.2	1513.3	900.8	100.0
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국가별 섬유류 수입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	섬유류	원료	원사	직물	제품*	비중
1	미국	264.7	11.0	22.0	66.1	165.7	10.8
2	중국	234.0	22.7	94.0	101.9	15.4	9.6
3	독일	139.7	10.6	19.8	48.6	60.7	5.7
4	베트남	111.6	5.4	11.9	87.9	6.3	4.6
5	홍콩	104.0	0.7	32.8	63.4	7.1	4.3
	전세계	2,444.7	142.4	478.5	1085.3	738.5	100.0
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1) 섬유류는 제50류 내지 제60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천연 섬유원료(제5001호 내지 제5003호, 제5101호 내지 제5105호, 제5201호 내지 제5203호, 제5301호 내지 제5305호)를 제외한 품목과 제63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

○ (의류)²⁾ 전 세계 의류 수출은 중국이 압도적 우위(전체 수출의 40.9%)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·일본시장은 베트남이, EU는 방글라데시, 터키 등이 선전

- 글로벌 바이어의 의류소싱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은 핵심요소로 ①저렴한 인건비, ②무역 협정(무관세 수입), ③물류(지리적 요건)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

* 방글라데시는 일반특혜관세(GSP),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으로 무관세로 대EU 의류 수출 가능

국가별 의류 수출 현황

(단위 : 억 달러, %)

순위	국가	금액	비중
1	중국	1,650.4	40.9
2	이탈리아	216.4	5.4
3	홍콩	207.2	5.1
4	독일	183.2	4.5
5	베트남	167.5	4.1
	전세계	3716.3	100.0

주 : 의류는 HS 제61류, 제62류로 분류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국가별 의류 수입 현황

(단위 : 억 달러, %)

순위	국가	금액	비중	주요 수입 대상국
1	미국	809.8	21.8	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
2	독일	355.0	9.6	중국, 방글라데시, 터키
3	일본	317.8	8.6	중국, 베트남, 이탈리아
4	영국	250.2	6.7	중국, 방글라데시, 터키
5	프랑스	220.3	5.9	중국, 이탈리아, 방글라데시
	전세계	3716.3	100.0	

주 : 의류는 HS 제61류, 제62류로 분류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2 TPP 참여국간 글로벌 서플라이체인(Global Supply Chain)

□ 섬유·의류산업은 섬유원료, 원사, 직물 등의 소재에 방적/방사, 제직/편직, 재단/봉제 등의 제조 공정을 수행하여 의류 또는 그 외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생산 과정을 포함

섬유·의류산업의 주요 제조과정 단계



□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참여국 내에서 섬유·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직물 수입 → 의류 생산(봉제) → 미국·일본 등 거대 소비시장에 판매하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형성

* TPP(Trans Pacific Partnership)는 미국, 일본, 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페루, 호주, 뉴질랜드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,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임

○ TPP와 같은 메가 FTA 내에서 섬유·의류산업은 원사 공급(supplier) → 생산기지(manufacturer) → 소비시장(consumer)이 연계가 가능하기에 대표적 수혜산업으로 꼽힘

2) 의류제품은 제61류 내지 제62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

(1) TPP 역내 최대 의류 소비국 : 미국, 일본

□ (미국) 세계 최대 의류시장인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36.7%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관세 효과로 북중미 국가³⁾도 선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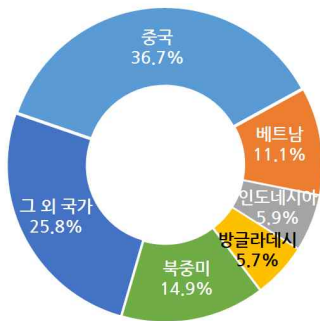
○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(점유율 36.7%), 베트남(11.1%), 인도네시아(5.9%) 등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 및 FTA 혜택에 힘입어 멕시코, 온두라스 등 북중미 국가의 점유율도 14.9%로 나타남

- NAFTA, CAFTA-DR 협정으로 북중미 국가의 의류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(주로 미국)에서 원사/원단 등의 원부자재 조달

*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요르단, 이스라엘과의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에서 원사규정(yarn forward rule)을 채택하여 의류 생산시 미국산 섬유 원부자재를 사용하도록 함. 미국의 원사/원단 수출은 북중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의 대세계 수출의 62.0% 가량 차지(OTEXA, 2014년 기준)

의류 수입시장 점유율

(단위 : %)



미국의 품목별 의류 수입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HS	품목명	수입액	점유율		MFN*
			중국	베트남	
611020	면/편물제의 저지, 폴오버, 카디건	8173	38.1	13.5	5.0~16.5
620342	면제의 남자 바지(청바지 포함)	5615	18.1	6.3	0.0~16.6
611030	합성섬유의 저지, 폴오버, 카디건	5359	32.9	13.1	6.0~32.0
620462	면제의 여자 바지(청바지 포함)	4738	40.4	10.6	0.0~16.6
610910	면 티셔츠	3974	10.0	5.2	16.5
620520	면제의 남자용 셔츠	3108	24.4	8.1	8.7~19.7
621210	브래지어	2227	51.4	1.7	2.7~16.9
합 계	의류	82974	36.7	11.1	

주 : 종량세는 제외,
자료 : 미국 상무성(US DOC, 2014년 기준)

○ 미국은 전통적으로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섬유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7.9%, 의류는 11.6%로 제조업 평균 관세인 3.5%를 크게 상회

* 미국 평균 MFN 관세율(WTO) : (전품목) 3.4%, (제조업 전체) 3.5%, (섬유) 7.9%, (의류) 11.6%

- 주요 수입품목인 면 티셔츠(HS 6109.1000, 관세율 16.5%)와 면바지(HS 6203.4240, 16.6%), 합성섬유 소재 상의(HS 6110.3030, 32.0%) 등 의류에는 최대 32%까지 관세 부과

참고 (TPP 체결에 따른 미국 섬유업계의 우려)

- ① TPP 체결시 베트남산 의류의 무관세 수입이 확대되는 한편 멕시코, 중미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미 섬유업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, 온두라스 등 북중미 국가에 대한 자국의 원사/원단 수출 감소를 우려
- ② TPP 역내국인 멕시코,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 향후 베트남 섬유산업 발전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을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
- ③ 일본의 고가 기능성 원단, Home textile, 산업용 섬유 수입 증대에 따른 피해 예상

자료 : "U.S. Textile Manufacturing and the Trans-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", CRS Report, August 28, 2014.

3) 북중미 국가는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의 캐나다, 멕시코와 CAFTA-DR(Dominican Republic-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)의 과테말라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 등 8개 국가

- (일본) 일본 의류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점유율(71.7%)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의 수입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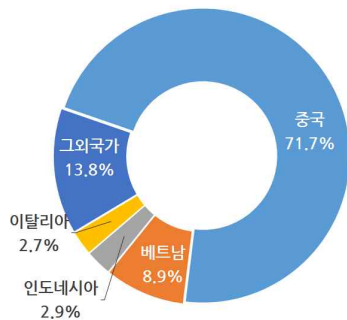
* 일본 의류 수입시장 점유율(2010년 → 2013년) : (중국) 83.6% → 71.7%, (베트남) 4.6% → 8.9%

- 한편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2.6%인 반면, 섬유는 5.5%, 의류는 9.2%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

* 일본 평균 MFN 관세율(WTO) : (전품목) 4.9%, (제조업 전체) 2.6%, (섬유) 5.5%, (의류) 9.2%

의류 수입시장 점유율

(단위 : %)



일본의 품목별 의류 수입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HS	품목명	수입액	점유율 중국	점유율 베트남	MFN
611030	합성섬유/편물제의 저지, 폴오버, 카디건	2743	84.0	5.8	9.1/10.9
611020	면/편물제의 저지, 폴오버, 카디건	1244	73.7	8.9	9.1/10.9
610990	면 외의 섬유로 만든 티셔츠	1120	69.1	14.3	7.4/10.9
610910	면 티셔츠	1101	61.6	13.3	7.4/10.9
620462	면제의 여자 바지(청바지 포함)	1075	68.3	6.0	9.1/10.0
620342	면제의 남자 바지(청바지 포함)	967	52.6	11.4	9.1/10.0
620520	면제의 남자용 셔츠	782	59.3	8.2	7.4
합계	의류	29345	71.7	8.9	

자료 : 일본 재무성(2014년 기준), Global Trade Atlas

(2) TPP 역내 최대 의류 수출국 : 베트남

- 베트남은 주로 중국, 한국 등 TPP 역외국에서 직물을 조달하여 봉제/재단 공정을 통해 미국, 일본 등에 의류제품으로 수출

섬유·의류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(Global Supply Chain)에서 베트남 역할



- TPP 역내에서 최대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은 원사/원단 생산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섬유소재를 중국, 한국 등 아시아에서 조달

베트남 직물 국가별 수입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국가	2010		2013		점유율 차이	연평균 증가율
	금액	점유율	금액	점유율		
중국	23.0	40.6	40.1	45.7	5.1	20.4
한국	11.7	20.6	18.0	20.4	-0.2	15.3
기타 아시아	9.6	16.9	13.0	14.7	-2.1	10.6
일본	3.9	6.8	5.8	6.6	-0.3	14.2
홍콩	3.6	6.3	3.6	4.1	-2.2	0.4
전체	56.8	100.0	87.9	100.0	0.0	15.7
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베트남 의류 국가별 수출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국가	2010		2013		점유율 차이	연평균 증가율
	금액	점유율	금액	점유율		
미국	60.3	59.6	85.7	51.2	-8.4	12.4
일본	10.0	9.9	21.4	12.8	2.9	28.9
한국	3.4	3.4	15.4	9.2	5.8	64.7
독일	4.4	4.3	6.4	3.8	-0.5	13.4
스페인	3.3	3.2	5.3	3.1	-0.1	17.1
전체	101.2	100.0	167.5	100.0	0.0	18.3

자료 : UNcomtrade (2013), 대만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

- 베트남의 직물 수입시장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5.7%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중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(2010년 40.6% → 2013년 45.7%)를 보임

업체 사례

(A사 : 의류업체 베트남법인)

- 의류를 수출하는 A사는 전량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, 전체 물량의 60%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
- 중국의 원사/원단 생산의 투자 확대로 설비가 대형화됨에 따라 균등한 품질의 원단을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중국산 원부자재 조달은 더욱 증가할 전망

- o 베트남 의류 수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8.3% 증가하였으며, 봉제/재단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베트남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

-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 확대는 주로 ①인건비, ②노동력의 질, ③적극적인 정부지원, ④아세안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및 치안, ⑤전기/용수 원활한 공급 등에서 기인

- o 베트남 대세계 의류 수출의 68.0%가 미국(51.2%), 일본(12.8%) 등 TPP 역내국에 집중되어 있어 TPP 발효시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가 크게 기대됨

*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30억 달러, TPP 발효시 220억 달러의 수출 증대 기대(자료 : Vietnam MOIT)

3 TPP 체결에 따른 섬유·의류산업 제조기반의 지각 변동

- 섬유·의류산업의 TPP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①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에 ②공급 부족목록(short supply list)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음. 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 채택시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TPP 역내 서플라이체인은 보다 강화될 전망

- o 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 채택시 의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최대 32% 관세율에 대한 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내에서 전 공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

- 미국은 중국산 원사/원단을 사용한 의류제품에 관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산 원사/원단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FTA 등의 무역협정에서 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을 원산지기준으로 채택함

- TPP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원사부터 봉제까지 의류생산의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베트남은 TPP 역외국(중국, 한국)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하기보다 자국 내에서 원사/원단 생산부터 봉제까지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

업체 사례

(미국 패션산업협회)

- TPP 협정이 체결된다면, 미국 글로벌 의류 기업들은 TPP 가입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것임
(자료: Vietnam News. 2015.8월)

(B사 : 의류업체 베트남법인)

- 미국 바이어는 향후 TPP 체결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 납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
현재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섬유소재를 베트남 현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조달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
한국의 주요 면방업체가 모두 베트남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원사/원단을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
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

- o 역내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재 섬유에 대해 역외조달을 허용하는 공급 부족목록(short supply list)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특정 섬유의 목록 포함 여부가 주목

참고 TPP 원산지규정 - 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

	엄격한 원사기준 (strict yarn forward rule)	유연한 원사기준(flexible yarn forward rule)	
		공급부족목록 (short supply list)	TPL(tariff preference level)
주요 내용	①원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TPP 역내국에서 수행해야함 ②미국은 자국산 원사/원단 사용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FTA에서 사용	①원사기준의 예외규정으로 역내 공급이 충분치 않은 특정 섬유 소재에 대해 역외 조달 허용 ②공급부족목록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(3년)으로 허용	①일정 양(쿼터)의 한도내에서 재단/봉제 공정만 수행(제3국 원단 사용)해도 FTA 혜택(미국으로 무관세 수입)이 유효 ②적용사례 -니카라과(CAFTA-DR, 2014년 종료) -코스타리카(CAFTA-DR, 양모 및 여성용 수영복에 한정)
지지층	-미국 섬유 생산업체(TAAT, Textile and Apparel Alliance for TPP) -북중미(NAFTA/CAFTA-DR) 의류 생산업체	-미국유통협회(NRF, National Retail Federation) -베트남은 봉제 규정(cut and sew rule) 선호 -일본은 제직 규정(fabric rule) 선호	

자료 : CRS Report, August 28, 2014.

- ☐ 의류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일관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다운스트림(downstream) 중심 투자에서 방식/방적 등을 포함하는 업스트림(upstream) 투자 본격화
- o 베트남의 주요 원부자재 수입 대상국인 중국, 한국, 대만 등 TPP 역외국으로부터 베트남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입에 의존했던 섬유소재를 베트남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

주요 섬유·의류 기업의 베트남 투자 현황(2014-2015년)

국가	투자내용
한국	- 일신방직(1.8억 달러, Tay Ninh, 원단 생산) - 동일방직(0.5억 달러, Dong Nai, 원사 생산) - 경방(0.2억 달러, 원사 생산) - 국일방직(0.3억 달러, Dong Nai, 원사 생산)
중국(홍콩)	- Texhong(3억 달러, Quang Ninh, 직물/의류 생산) - Worldon(3억 달러, Tay Ninh, 제품 생산) - Jiangsu Yulun(0.7억 달러, Nam Dinh, 원사/직물/염색) - Shenzhou International, Gain Lucky(1.4억 달러, Cu Chi, 스포츠 의류) - TAL(2억 달러, Van Trung, 방직/염색)
대만	- Union Textile and Garment Company Limited(1억 달러, Tinh Bien, 의류) - Tai Yuen Textile(1.5억 달러, Ha Nam, 직물 생산)
일본	- Itochu(Nam Dinh, 방직/직물/염색 공장, Vinatex 9백만 달러 지분 투자) - Toray International and Mitsui 투자 고려중
호주	- Woolmark, Lenzing 투자 고려중

자료 : 베트남 기획투자부(MPI) 및 각 국 보도자료 정리

- ☐ 또한 한국의 TPP 가입시 중국/대만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부자재 조달을 한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우리의 수출 확대가 기대. 다만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확대가 가속화 될 경우 TPP 가입에 따른 수출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
- 원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/인도산 섬유소재(폴리에스터, 나이론 등) 및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산 원부자재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한국산 섬유소재 수출 확대 전망
- 한편 주요 방직업체의 베트남 현지 진출이 결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공동화가 진행중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수록 TPP 가입에 대한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

4 결론 및 시사점

- ☐ TPP 타결시 주요 의류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고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은 TPP 내 섬유·의류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핵심축이 될 전망
- 가격경쟁력이 크게 작용하는 섬유·의류산업에서 낮은 인건비 및 TPP 관세효과로 베트남은 최대 의류 수출국인 중국을 추격할 것으로 보임
- 원사기준(yarn forward rule) 충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(홍콩 포함), 대만, 일본 원사업체의 베트남 진출로 베트남은 봉제뿐만 아니라 섬유소재 생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
-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에는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나라의 섬유소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기술적으로 차별화되는 한국산 원사/원단 등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/대만 등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회복에 따른 원부자재 수출 확대가 기대
-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PP 타결시에는 우리나라의 현지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적극 활용할 필요
 - TPP 협상 타결 후에도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및 우리나라 가입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베트남을 대미/대일 수출의 생산기지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필요
- 한편,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공동화는 이미 진행 중이므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슈퍼 섬유/산업용 섬유 등에서의 기술 강화와 R&D(디자인)에 주력하는 등 섬유·의류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